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윤리학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일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간과한다
- ②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현실의 도덕 문제에 윤리 이론을 응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과 인과 관계의 설명을 강조한다
- ⑤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한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제 정치의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권력은 국제 정치에서 최상이라고 인정되는 가치이다. 정치적인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을: 국제 사회의 평화는 국제 연맹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국제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고,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만 관여한다.

&lt;보기&gt;

- ㄱ. 갑: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될 수 있다.
- ㄴ. 을: 평화 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
- ㄷ. 을: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가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 ㄹ. 갑, 을: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이름을 바로잡는 것[正名]이 정치의 시작이다. 이름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예악이 흥성하지 않고, 예악이 흥성하지 않으니 형벌이 제멋대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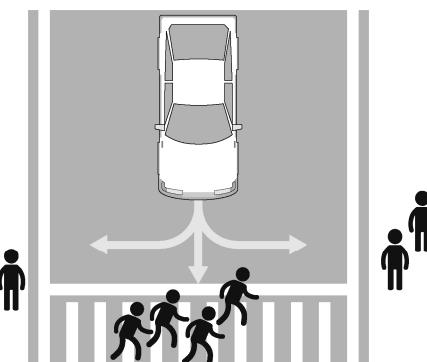
을: 도(道)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간다.

- ① 갑: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無爲)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恕)를 행해야 한다.
- ③ 을: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걸맞는 예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④ 을: 시비선악(是非善惡)을 구분하여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 ⑤ 갑, 을: 인(仁)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개별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행위이다.

&lt;문제 상황&gt;



자율 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 A는 위 그림과 같이 자율 주행 자동차가 고속 주행 중 제동을 시도해도 보행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주행하도록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
- ③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①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반영하여 주행하도록 설계하세요.
- ② 탑승자와 보행자의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세요.
- ③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행하도록 설계하세요.
- ④ 보행자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설계하세요.
- ⑤ 사회적 관습에 내재한 선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세요.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삶은 죽음과 함께 걷고 죽음은 삶에서 비롯하나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사람의 삶은 기(氣)가 모인 것이라서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니라. 좋아하면 멋진 것이라 하고 싫어하면 역겨운 것이라 하지만, 역겨운 것이 멋진 것이 되고 멋진 것이 다시 역겨운 것이 되네. 따라서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기로 통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일세. 성인(聖人)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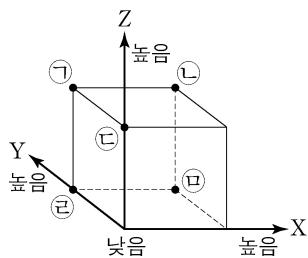
<보기>

- ㄱ. 삶에 얹매이지도 말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 ㄴ. 죽음을 의식하지 말고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행해야 한다.
- ㄷ. 삶과 죽음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 ㄹ. 죽음은 윤회의 일부이며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결정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①~⑤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개인은 감각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성적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자발적 동의와 자율성이 존중되기만 하면 정당화된다.  
 (나)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행위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 X: 성의 가치를 감각적 쾌락에서 찾는 정도
- Y: 성행위의 전제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 Z: 사회적 관점에서 성행위에 수반될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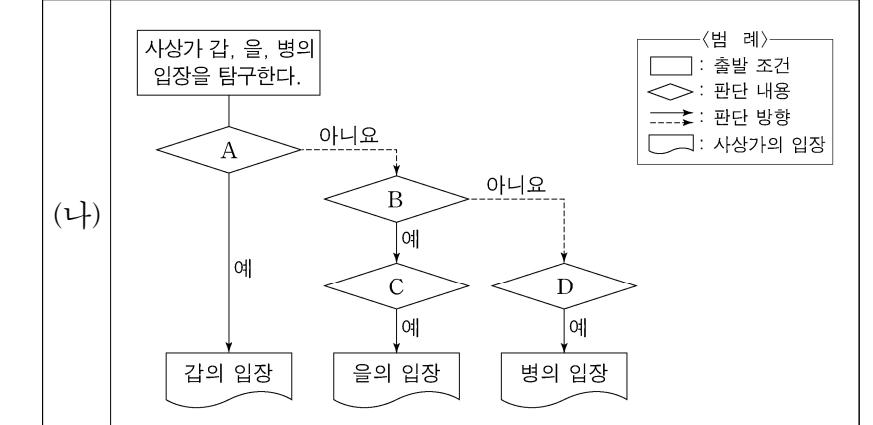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공직자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적인 의무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목민관이 욕심을 부려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다 보면 민생고가 심해진다. 재물에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도 칭송할 만한 것이 못된다. 아울러 목민관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 ① 애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절용과 청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②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한다.  
 ③ 납품을 받을 때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 작은 선물이라도 사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⑤ 국민에게 미치는 실효성을 따져 국가 재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살인의 경우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을: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병: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 목적이므로,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도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 <보기>  
 ㄱ. A: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  
 ㄴ. B: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한가?  
 ㄷ. C: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가?  
 ㄹ. D: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을: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기에 조정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가 없다.

- <보기>  
 ㄱ. 갑: 도덕적 공과(功過)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다.  
 ㄴ. 을: 차등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ㄷ. 을: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ㄹ. 갑, 을: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배아에 대한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배아의 사물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유전적 간섭으로 프로그램되어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 이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인간 몸의 자연 발생성은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지만 우생학적 접근은 바로 그런 조건을 뒤흔들고 말 것이다. 다만, 유전적 간섭은 치료라는 규제 이념에 인도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 &lt;보기&gt;

- ㄱ. 유전적 간섭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 ㄴ.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인간의 미래를 위해 권장되어야 한다.
- ㄷ. 인간의 유전적 자연성은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이다.
- ㄹ. 부모는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으로 자녀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 한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에는 자명한 일이었다. 인간의 책임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권력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다.

- ①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비례하는가?
- ② 과학 기술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③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하는가?
- ④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는가?
-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가 도출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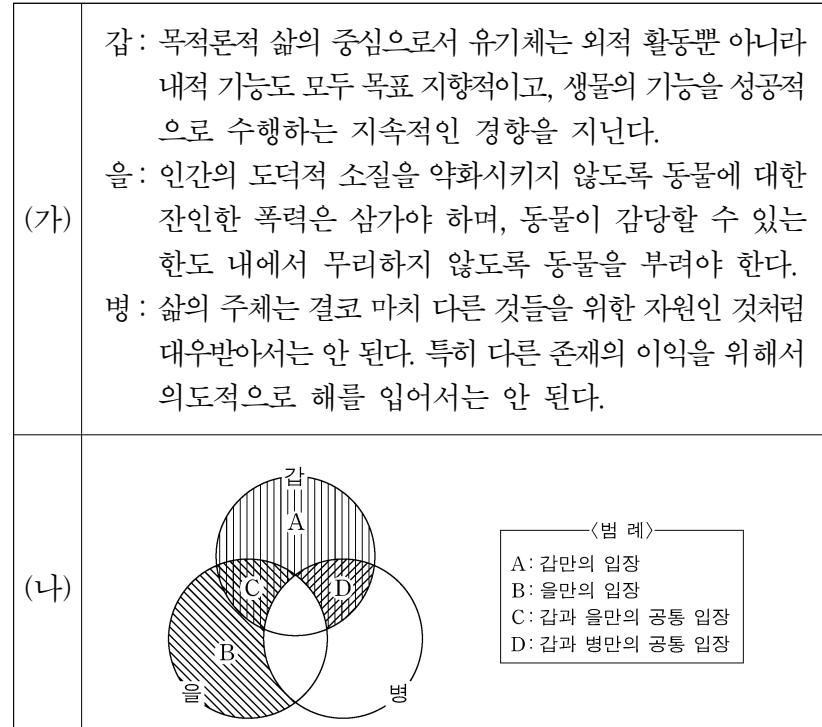
13.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인터넷을 활용한 뉴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 아니라 유통과 생산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허위 정보 내지 유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의 흥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숨겨도 IP 추적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해야 한다.

- ①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윤리가 필요하다.
- ②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 아니라 정보의 유통에서도 주체이다.
- ③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④ 거짓 정보의 생산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⑤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한다.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ㄴ.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ㄷ. C: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 ㄹ.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⑦~⑩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문제: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한다.

을: 모든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 권리의 향유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인간은 공동체를 결성하고 공동의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국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학생 답안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⑦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통의 권리가 없는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고 보고, ⑧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을은 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고, ⑩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⑪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은 인간이 사는 체험 공간의 구체적인 중심이며, 이런 중심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는 거주함으로써 실현된다. 거주한다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속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집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특히 거주는 분리된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 즉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개인 공간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한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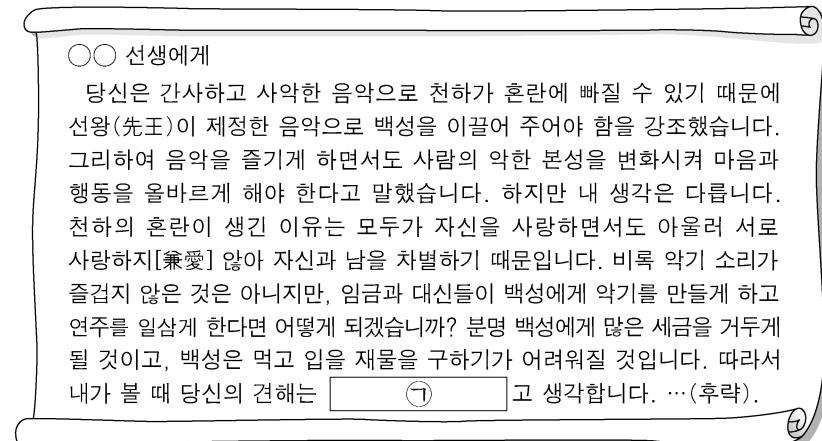
- 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편안함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
- ② 거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③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개인이 활동하는 세계의 중심이다.
- ④ 거주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 ⑤ 인간은 거주를 통해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聖顯)이라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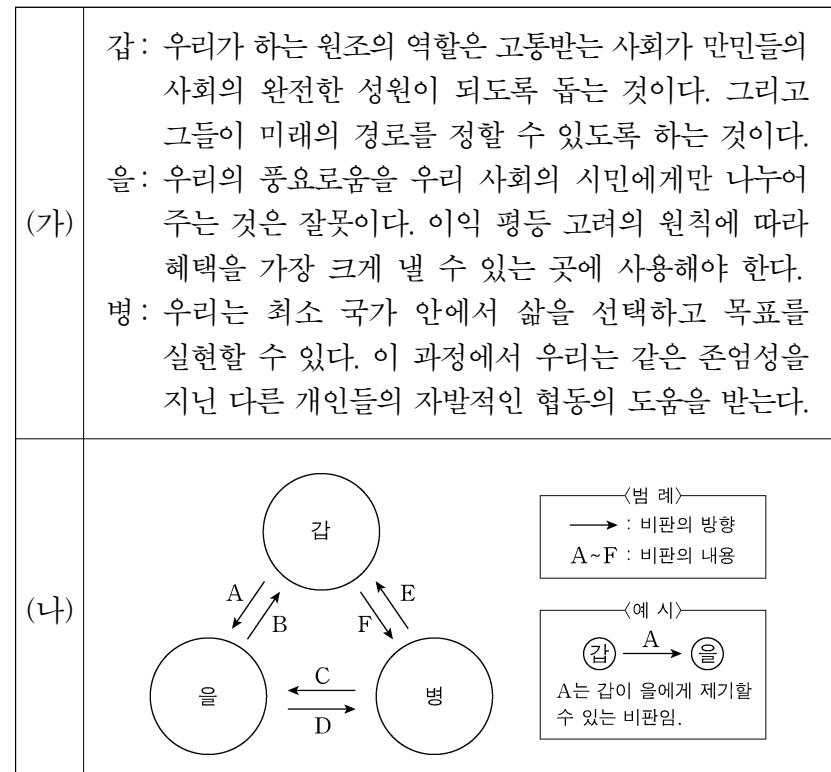
- ①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성(聖) 그 자체이다.
- ② 성스러움과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④ 종교적 인간에게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다.
- ⑤ 신은 자연을 통해 성스러움을 다양한 양태로 드러낸다.

18.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음악과 예의의 조화를 통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여 화합하는 데 음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③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음악이 이상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에게 무익함을 간과한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은 원조 목적에 위배됨을 간과한다.
- ② B: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 빙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간과한다.
- ③ C, E: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돋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F: 원조 대상국이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도와야 함을 간과한다.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재의 분단 상황은 정전 상태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을: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이 필요합니다. 종전 선언은 남북한이 상호 적대 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갑: 종전 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확대될 수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은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선언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을: 종전 선언이 북한만을 위한 시혜는 아니므로 상호주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전 선언이 정전 상태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① 북한은 현재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 ② 분단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가?
- ③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 ④ 종전 선언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인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